입 문

문답속에 흐르는 법리 감로수

■전등록4/문재현 옮김

스승과 제자의 문답 사이에서 드러나는 명철한 법리. 그러나 선문답이 어찌 문답에 그칠 것인가. 법을 구하는 자의 갈증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를 짚어 정도로 이끌어주며, 범상치 않은 문답 속에서 제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 올려주니, 이야말로 진정한 감로수라 할 것이다. 전등록이 전등록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등록은 전5권짜리 '바로보인 전등록'의 네 번째 권. 법리의 측면에서 깊이 살펴 기존에 번역 출간된 것보다 원문의 취지에 더욱 근접해 있다. 조사의 참뜻을 제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점에서 법리에 밝은 문재현 법사가 번역해 낸 이 책은 선불교가 가지는 특성의 맥을 잡고 갖가지 표현에 대한 진의를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 하다.

바로보인 18,000원 (02)597-2460

경전의 근원-화엄경 풀어쓰기

■화엄경현담/징관스님 지음

〈화엄경〉은 뭇 경전의 근원이 되고 만가지 덕성이 바다로 일려 음으로, 뭇 경전을 거두어들여 귀속으로 삼는다. '현담(玄談)'이란 경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그 경전의 요지를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옛날 스님들 대부분이 경전을 강의하기에 앞서 현담을 설하였으니, 자금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관의 〈화엄경현담〉이 그 양이나 질로 보아 다른 여러 경전의 현담들 압도하지 '현담'이라 말하면 으레히 〈화엄경현담〉을 생각하게 된다.

〈화엄경현담〉은 옛부터 매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에서 사부대중이 모여 주경야독하면서 연구한 것을 묶었기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려고 노력했다.

중앙승가대학교 출판부 6,000원 (02)929-9991

에 세 이

풀친구와 만나는 아이들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이상권 지음

"오빠 꽃이 참 예쁘다. 오빠는 무슨 꽃인지 알아?" "음, 그것은 말야, 노랑 국화야." "정말 노랑 국화꽃이야?" "그렇다니까. 작년에 학교에서 봤어. 내가 꺾어 줄까?" 손을 쭉 뻗어 꽃을 꺾으려고 하는 순간 "앗, 따가워" 보고 있던 아빠가 "허허허, 노랑 국화? 그것도 그럴 듯하다만, 이 풀은 애기똥풀이란다."

이상권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아이들에게 소개한다.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 바로 풀이라는 친구를. 애기똥풀을 비롯해 익모초 질장군, 괭이밥 등 아이들에게 낯선 풀들을 이처럼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장수영 아저씨의 그림도 재미있다.

창작과비평사 6,000원 (02)718-0543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혜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양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읽어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기피력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왕 12,000원 (051)625-9065

詩心으로 승화된 구도적 자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엮음

'님이가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 것을 그 몇 사람 객수 속에 같이 갇혔니/한마디 버릇 질려 삼천세계 뒤흔드니/눈속에 점점이 복사꽃 붉게 지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오도송이다. 스님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스님보다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유. 그것은 스님의 지조있는 사상과 부처님을 향한 구도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 외에 잡 알려져 있지 않은 18편의 시와 시조 32편, 동시 3편, 한문으로 된 선시 138편을 한 권에 담았다. 만해시의 결정판.

장승 10,000원 (02)730-2500

기 타

신승(紳僧) 의문 풀기

■기도와 영험 이야기/심종선 엮음

중국에서 편찬한 〈불교대장경〉은 신승(神僧)을 "신이 되어 만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통력을 가진 스님들"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승은 있는 것인가.

현 지장불교 문화대학 학장인 저자는 '신승이 있다면 보통스님과는 달리 어떤 행동을 하며,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부산 법연사의 조연스님이 어떤 신승의 법주에 들어가는 이적들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사실에 깊은 신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만대장경에 있는 신승전, 바구니전, 전등록, 선문염송과 일본의 본조고승전 및 각 사찰의 사지(寺誌) 등에서 신승들에 관한 기록들을 모았다. 방광하는 이야기, 영가 천도 이야기, 병자 치료 및 소원성취 이야기 등 불자들이 직접 겪은 수기들 안에 묶었다.

법연 8,000원 (051)517-2080

금주의 명저순례

깨달음으로 가는 진솔한 과정

■그냥 갈 수 없는 길/이도원 지음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해 자연과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와 불교가 이미 한 몸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기 까지의 과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글쉬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

불광출판부 7,500원 (02)420-3200

선지식의 일침은 용기와 희망

■산승의 향기/이학종 지음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이다.

〈산승의 향기〉는 서옹스님을 비롯해 월하·월산·승찬·원담스님 등 25인 큰스님들의 삶에서 바로 그런 가치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출가와 수행과정,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채찍,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일침은 스님들의 사람과 사회에 대한 애정을 듬뿍 느끼게 한다.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책. 법보신문 이학종 기자가 3년여간 큰스님들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취재해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묶었다.

운주사 7,000원 (02)720-9372

지혜의 실천 '반야경'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반야경/혜탈스님 지음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들 수많은 대부(大部)의 반야경들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 특히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총원 지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접근했다. 또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무한성 등에 관한 문제까지 탐구하고,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설파되어 있다.

출판시대 6,500원 (02)3443-4307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공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줄기처럼, 때로는 결허히 내리는 싸라눈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갇혀있는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깨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흙내로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간간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슈리푼다의 '참나' 찾기

■무엇이 깨달음인가/슈리 푼자 지음

그대는 불타고 있는 나무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어째서 그대는 불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대는 잠자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인도의 수행자 슈리 푼다는 〈무엇이 깨달음인가〉에서 참나로 돌아 올 때, 이것이 깨달음이요, 해방이요, 자유임을 말한다. 그리고 깨달음은 곧 마음의 고요이며, 마음의 고요는 실재와 실재 아닌 것을 구분하는 탐구와 집중, 명상 등 여타의 수행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풀이해 부록으로 달아 놓아 이해를 도왔다. 김병채 교수(창원대 심리학)가 옮겼다.

하남출판사 8,500원 (02)720-0311

금주의 추천도서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까사끼 지끼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출적한 해박한 지식을총동원해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맹점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홍사성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불교사전의 금자탑 ! 불교대사전 출간 !

佛教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①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② 가능한한 각 용어 마다 범어·팔리어·티벳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다.
③ 한글 세대를 위하여 한문은 괄호안에 넣었다.
또한 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